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어다

#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楸泰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 신축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현명한 판단과 선택! 보다 나은 내일, 함께 합시다!



한추태  
중앙종친회장

지난 한해, 년 초부터 발현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8,600만명과 186만명에 이르렀고, 국내 또한 확진감염 66,000명에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있고 우리 종친일가분들께서도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기총회마저 서면으로 대체해야만 했던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중앙종친회 종사운영과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서,

1. 무강왕릉 수호보전을 위한 추진 노력이 우리 종친회 뜻대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무강왕릉 관련 문헌기록 안내판을 세우고, 청주한문 독자적 주관으로 매년 대제를 봉행하고, 대왕릉 발굴 시 출토된 무왕의 인골이라 주장하는 인골과 재현된 목관은 재 불안 없이 발굴당시 원상대로 복원한 후 고유제를 봉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학술적 논리적 대응을 바탕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무강왕릉 수호보전을 위해 힘써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2. 세일제 및 관리자 기와지붕 보수, 화장실 증.개축, 묘역 소나무 조경 및 화단 정비 등 보수 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세일제 및 관리사의 기와 지붕과 경내 외를 정비 보수하였고, 화장

실을 현대식으로 증.개축하여 특히 여성일가분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시조묘역 소나무의 가지치기 조경 등 보수 정화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뜻있는 몇몇 일가분들의 성금으로 시행하였기에 헌성비를 세워 고마운 뜻을 남기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3. 시조부군 및 선조님의 세향과 향사제례를 경건하고 원만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시조 및 선조님의 향사는 세세손손 연면히 이어나갈 청주한문의 아름다운 가업입니다만 지난해에는 불가피하게 고유례로 대체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시조부군의 세향도 회장단을 중심으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원만하게 봉행을 하였습니다. 일가분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4. 청주한씨 뿌리와 인명록 편집을 완료하였고, 종보 30년사와 40년사를 영인본

### 존경하는 청주한문의 100만 종친일가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속초 영금정에서 바라본 일출과 어선 (출처 한국관광공사)

으로 제작 하였습니다.

명문 청주한씨의 연원 및 세계, 시조부군 및 선조의 유사와 유적 등을 사진과 도표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요약하였고, 문중별 지역별 일가분들의 인적사항과 일상에 유용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편집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주한문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가 간 소통의 매체로 화합돈독에 일조하면서 문중의 발전·계승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주한씨의 소식지인 「청주한씨보」를 영인본 합본으로 하여 30년사와 40년사를 제작 하였습니다. 1976년 11월 창간호 발행 이래 1985년 10년사, 1999년 20년사에 이어 두 권의 실물 타블로이드 흑백 원형으로 제작하여 기록문화로 보존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5. 이외 여러 현안사항은 이사회, 회장단 또는 원로, 임원 상호간 논의와 소통을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등 종사를 원만히 수행하였음에 보람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6. 아울러 시조묘역에 청주한씨 역사문화 박물관 신축 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종친 일가여러분!  
금년은 새로운 3년을 이끌어갈 중앙종친회장을 선임하는 해입니다.

조직의 성패는 리더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 보다 나은 내일의 길, 우리 함께 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모 광고문구가 새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청주한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결실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써 정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100만 종친여러분!  
금년에도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결코 순탄치만은 아닐듯합니다. 만,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으로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로 신성한 기운이 있어 하는 일마다 잘되고 대성할 운이 크다고 합니다. 송조돈독, 더욱 발전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신년새해 건승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고 반갑게 봄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며...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추태

###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갑수 명예회장
- 현수 상임고문
- 기호 상임고문
- 추태 중앙회장
- 선교 감사
- 승남 감사
- 연동 수석부회장
- 동수 중무부회장
- 태락 조직부회장
- 삼량 청장년부회장
- 춘섭 문화부회장

- 종파회장
- 철호 삼재관리위원장
- 규동 사속공추모회장
- 태교 평간공봉찬회장
- 길수 서원군파회장
- 성우 문경공파회장
- 기천 문렬공파회장
- 동수 문간공파회장
- 선교 충성공파회장
- 진수 검참공파회장
- 석희 문양공파회장

- 석구 문정공파회장
- 상량 참판공파회장
- 유광 찬성공파회장
- 태락 절도공파회장
- 두환 이랑공파회장
- 재국 판사공파회장
- 동석 정당공파회장
- 덕규 양절공파회장
- 치용 양해공파회장
- 기일 현령공파회장
- 만교 장도공파회장

- 상기 참의공파회장
- 상우 질경공파회장
- 규백 회양공파회장
- 석인 충정공파회장
- 동석 전교공파회장
- 형동 직사관공파회장
- 임개 몽계공파회장
- 전담부회장
- 근우 세마공(논산)회장
- 춘희 충정공파회장
- 찬규 충의공파회장

- 인석 팔봉회장
- 석례 여성위원장
- 광역시도회장
- 상락 서울시회장
- 동경 부산시회장
- 태락 대구경북회장
- 천식 인천시회장
- 창화 광주시회장
- 갑수 대전시회장
- 일수 울산시회장
- 광전 경기도회장
- 명수 강원도회장
- 장훈 충북도회장
- 격동 충남도회장
- 영교 전북도회장

- 만준 경남도회장
- 정식 제주도회장
- 전담이사
- 도영 제전이사
- 현수 조직이사
- 청한장학회
- 우동 이사장
- 효동 세마공장학회
- 광 시외공장학회
- 추태 광천공장학회
- 연동 판관공장학회
- 길수 국산공장학회
- 강 감시공장학회
- 태수 성호공장학회
- 상욱 청암공장학회

- 규백 회양공장학회
- 태락 대구경북장학회
- 춘희 충정공장학회
- 명수 교위공장학회
- 상필 청파공장학회
- 장훈 서범공장학회
- 복섭 낙안공장학회
- 중주 이원공장학회
- 동경 부산시장학회
- 천식 한인장학회
- 상근 화정공장학회
- 택수 상언공장학회
- 선교 충성공장학회

# 2020년 庚子年 시조 위양공부군 세향 봉행

## 방역수칙 준수, 회장단 중심 130여명의 후손 참사

초헌관 楸泰중앙종친회장  
아헌관 台洛대구경북회장  
종헌관 吉愚장헌공파회장



좌로부터 추태회장, 태락회장, 길우회장

중앙종친회(회장 楸泰)는 지난 11월 15일 (음력 10월 1일, 일요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위치한 시조부군 묘역(충북기념물 제72호)에서 130여 명의 일가들이 참사한 가운데 2020년도 경자년 시조부군의 세향 제례를 경건하고 원만하게 봉행하였다. 시조부군 세향은 청주한문의 아름다운 가업이자 시조부군의 음덕을 기리는, 송조·화합돈목의 장으로 매년 2,000명에 달하는 일가들이 참사하여 성황리에 봉행을 하고 있지만 지난 경자년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당국의 행사 자제권고와 방역지침 준수로 인원을 대폭 제한 회장단 중심 130여명이 참사하여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쳤으며, 내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많은 일가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한결 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냈다.

초헌관에는 추태(楸泰)중앙종친회장, 아헌관에는 태락(台洛)대구경북회장, 종헌관에는 길우(吉愚)장헌공파회장, 축관은 도영(到榮)중앙회 제전이사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종호(鍾顛)이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관 분방 별항)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諱 蘭)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을 쌓게 되었는데 그 막중한 소임을 맡아 태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쌓았고, 928년(태조 11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品階)인 삼중대국개국벽상공신(三重大國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오늘날의 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훌륭한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어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威襄-천지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시조부군의 세향제례를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벽상공신이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 서기 940년(태조 23년)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면서 공신당의 양쪽 벽(壁)에 고려의 개국공신 중에서도 특별히 큰 공을 세운 공신의 초상(肖像)을 그려 넣으면서 비롯된 호칭이다. 속리산맥을 타고 내려와 황간 땅에 이르러 우뚝 솟은 지장영봉(芝庄靈峰)은 사위(四圍)를 거느리고 멀리 백리에 뻗쳐 영기(靈氣)가 모였으니 이곳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永同郡 黃澗面 蘭谷理)에서 당대의 위인으로 탄생한 시조 위양공(威襄公)께서는 일찍이 청주로 이주하여 방서동(方西洞)에서 용개(龍開)평야를 개척, 큰 부호가 되었으며 무농정(務農亭·1990년 12월 14일 충북기념물 제85호로 지정)을 세워 향학(鄉學)을 일으켰다.

추태중앙회장은 세향봉행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 세일재 및 관리사 지붕 보수와 화장실 증개축 및 묘역 조경사업 등 정화 보수공사를 시공한 광덕기와 임동일가와 공사의 수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현수조직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한 후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당국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부득이 회장단 중심으로 인원을 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 금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게 보내는 중에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봉행일을 맞아 경향 각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사해주시는 일가분들을 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전국의 남녀노소 많은 일가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고, 이곳 시조부군의 묘소는 전국 8대 명당 중 으뜸인 곳이지만 처음부터 순조롭게 보전되어 온 것은 아니다.

시조부군의 묘소가 여러 세란 등을 겪으



추태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면서 오랜 기간 실호됨에 선조님들이 애석한 마음으로 단과 비를 세워 매년 세일제(歲一祭)를 받들었고, 묘재(墓在)가산이라는 문헌을 참고로 평안도 가산 등 여러 지역의 같은 지명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숙종조인 1680년대 후반에 묘하 민가에 살던 한모(韓某)로부터 동리에 사는 모(某)가가 태위공 산소 봉분을 파괴하고 묘갈은 중단(中斷)하여 우물바닥에 묻은 후 산소 전 후면에다 투장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즉시 방서동에 여명공(姪溟公) 후손인 성헌(聖憲)에게 소상하게 알렸고 이를 계기로 청주병사(淸州兵使)로 재임 중이던 후손 근(根)과 더불어 가산(駕山)에 달려가서 조사하고 제소하여 태위공(太尉公) 묘(墓)임을 확인(確認)하게 되었다. 그 후 묘역을 개봉축(改封築)한 후에 표석(表石)을 세우고 지식(誌石)을 매장(埋藏)하였으며 제전(祭田)과 묘직(墓直), 재실(齋室) 등을 차례로 조치하였으며 1768년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많은 선조님들의 공로로 시조묘역을 수호하고 제례를 봉행하며 보전해오고 있지만 특히 청주에 세겨 중인 월포공,여명공문중 선조

님들과 일가분들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시조이신 휘 란(諱 蘭)을 비롯 훌륭한 선조님들의 고귀한 업적과 유지를 기리는 한편 유적 또한 잘 받들고 보존함은 물론 종사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 훌륭한 후손들로 하여금 찬란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오늘 둘러보신바와 같이 최근 보수가 시급한 세일재와 관리사의 기와지붕을 보수하고 화장실을 증개축하여 일가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조묘소의 소나무 가지치기 등 정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중앙회 종재가 부족하여 몇몇 뜻있는 일가분들의 헌성금으로 시행하였다. 그 고마운 뜻을 헌성비에 새겨 수립하였다. 이 일을 추진하는 동안 고마움도 있었지만 반면 어려움과 서운함 또한 많았다는 소회와 더불어 중앙종친회는 앞으로도 무강왕릉의 수호보전 등 주요종사를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세향 봉행이 엄숙하고 원만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4위 선조 경자년 세향 봉행

##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초헌관 福敎(정당공파중중)·아헌관 基萬(문정공파중중)·종헌관 達燮(회양공파중중)



4위(2세·3세·4세·5세)선조의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일) 시조부군 세향봉행에 이어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2세, 3세, 4세, 5세선조를 추모하는 4위 선조의 경자년 세향이 봉행되었다. 초헌관에 복교(정당공파), 아헌관에 기만(문정공파), 종헌관에 달섭(회양공파)일가, 축관에 동권(참판공파)일가가 각각 분방되어 도영중앙회 제전이사사의 집례로 엄숙히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당일 세향을 봉행한 4위 선조는 시조 하 2세 용호군 교위공 휘 영(龍虎軍 校尉公 諱 穎), 3세 별장 동정공 휘 상휴(別將 同正公 諱 尙休), 4세 상의 직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 諱 奕), 5세 신호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諱 希愈)이다.

4위 선조는 오랜 풍상과 겹치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을 뿐 유택

### 시조세향 제관 분방

• 初獻官 : 楸泰 중앙종친회장	• 司 樽 : 允洙 침정공파
• 亞獻官 : 台洛 대구경북회장	• 左 奠 : 鍾浩 문정공파
• 終獻官 : 吉愚 장헌공파회장	• 右 奠 : 明燮 참판공파
• 執 禮 : 鍾顯 문정공파	• 左 奉 : 東鎭 문정공파
• 大 祝 : 到榮 제전이사	• 右 奉 : 鉉洙 참판공파
• 謁 者 : 萬九 문정공파	• 執 事 : 東厚 참판공파
• 陳 設 : 炳雄 충성공파	

<h3>4위단 제관 분방</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初獻官 : 福敎 정당공파</li> <li>• 亞獻官 : 基萬 문정공파</li> <li>• 終獻官 : 達燮 회양공파</li> <li>• 執 禮 : 到榮 제전이사</li> <li>• 大 祝 : 東權 참판공파 이하 상동</li> </ul>	<h3>산신제 제관 분방</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獻 官 : 泰洙 충성공파</li> <li>• 祝 官 : 暢洙 충성공파</li> <li>• 執 事 : 慶澤 이양공파</li> </ul> <h3>사무처 및 지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接 受 : 一鎔 참판공파·相烈 문양공파</li> <li>• 到 記 : 範錫 서울시·成益 문정공파</li> <li>• 안내/질서 : 기태·노동(청주)</li> </ul>
--	---

(幽宅)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姓)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1985년도부터 시조묘역 내 세일제 좌편에 4위단을 모시고 매년 시조 세향일에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1985년 4위 추모설단을 시조묘역 내에 모시기 전까지는 전남 영광에 모신 6세조 예빈경공(禮賓卿公·諱 光胤)의 추원재(追遠齋)에 4위 신위(神位)를 모시고 예빈경공의 세향 봉행에 앞서 제례를 올렸었다.

## 제전위원 및 전국 청장년 일가 등 20여 명 세향 준비 및 진행 자원봉사



제관 및 제전위원

130여 명의 후손들이 참사(參祀)한 2020년도 경자년 시조세향 및 4위 선조(2·3·4·5세) 세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봉행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전준비와 세향 당일의 안내, 질서유지 등 진행을 도운 20여명의 제전위원 및 서울, 경기, 청주 등 각 지역과 종파문중의 일가들과 일부 임원들의 자원봉사가 있었다. 중앙회 집행부의 지원을 받은 20여명은 세향일 하루 전에 현지로 내려가 재실 별채에서 숙박을 하면서 세향이 끝날 때까지 청소 정리 및 천막설치, 도

포와 예복관리, 명부작성 및 체온체크 관리, 차량 출입통제용 차단기 설치 및 잡상인 통제, 헌성금 접수대 설치 및 접수, 시조세향 예행연습, 행사 후의 정리 정돈 등 사전 준비와 진행, 마무리를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써 집행부와 일가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송을 받았다.

자원봉사 일가 동수, 태수, 창수, 경택, 범석, 도영, 현수, 일용, 상렬, 만구, 성익, 종호, 병웅, 동권, 동진, 동후, 윤수, 명섭, 창하, 두환, 임동, 기태, 노동, 재호 (무순·직함생략)

## 시조세향에 1,225만원 헌성. 태락회장 200만원, 추태회장 100만원

지난 11월 15일에 봉행된 시조 세향에 참사인원을 회장단 중심으로 대폭 제한했음에도 태락대구경북회장 200만원, 추태중앙회장 100만원 등 56명의 일가들이 1,225만원의 성금을 헌성하였으며 충성공

파 선교회장은 시조세향에 올리는 제주로 민속축제를 헌성하였다. 헌성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성한 일가분들 내역 별항)

## 시조묘역 및 세일제 등 보수·정화사업 시행

추태회장 2천만원 등 헌성금으로 시행 중앙종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10월 보수가 시급한 세일제와 관리사의 기와 지붕을 보수하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증.개축하여 특히 여성일가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시조묘역의 소나무를 조경하고, 세일제 경내외의 담장과 화단을 정비하는 등 보.정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번 보수공사는 추태회장 2천만원, 김수회장·정식회장·기환일가 각 1천만원, 장헌공파중중 8백만원, 삼재부회장·장훈회장·태락회장·삼재관리위원회 각 5백만원(금약순, 동일금액은 접수순임) 등 전

### 獻 誠 碑

시조묘역 내 제방터 및 관저터 지하지하 묘역의 화장실 증개축 및 묘역 소나무 조경 등 보수·정화사업을 시행함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남기고자 헌성금을 전달한다.

■ 보수 및 정화사업비 - 총 동수·태수·창수(₩77,000,000)	■ 소나무 조경 정비 - 2,000만원
■ 제방터 보수 - 1,200만원	■ 화단정비 및 기타 - 300만원
■ 화장실 증개축 - 5,000만원	■ 화장실 및 화장실(₩70,000,000)
■ 화장실(중앙종친회) - 2,000만원	■ 김경은씨 장학금기탁금 - 800만원
■ 화장실(이원중중회) - 1,000만원	■ 김일환(중앙종친회) - 500만원
■ 화장실(제주도중회) - 1,000만원	■ 김일복(중앙종친회) - 500만원
■ 화장실(경북중회) - 1,000만원	■ 김병익(중앙종친회) - 500만원
■ 김희희(중앙종친회) - 1,000만원	■ 김병익(중앙종친회) - 500만원
■ 김희희(중앙종친회) - 1,000만원	■ 김병익(중앙종친회) - 500만원

■ 기부자 : 후지자(7) 대표 헌성금(이원중회)  
2020년 11월 15일  
청주전씨중앙종친회상 인 추 태

현성비(동일금액은 접수순) 액 헌성금으로 시행하였으며, 임동일가(이랑공파, 광덕기와 대표)의 시공으로 완공하였다. 중앙종친회는 헌성 및 시공 등 도움을 주신 일가분들의 고마운 뜻을 새긴 헌성비를 세일제 좌편에 세웠다.

# 益山 雙陵(大王陵·小王陵)에 대한 見解

## 익산 쌍릉은 마한태조 무강왕과 왕비릉이다.



한 대락  
무강왕릉수호비대책위원장

무수한 역사적 문헌에 익산쌍릉은 마한태조 무강왕과 왕비릉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익산쌍릉이 재발굴을 기점으로 역사기록과 동떨어진 백제 무왕릉과 신라 선화공주의 릉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적 기록과 그 동안의 과정을 무강왕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하고 무강왕릉 수호에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면을 통해 익산쌍릉에 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함에 있다.



무강왕릉 및 왕비릉 <석왕동 소재, 사적 제87호>

를 왜곡하고 있다.

• 이에 따른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시조묘인 익산쌍릉을 지키기 위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행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쌍릉의 조사 발굴과정

- 1910년 12월 : 일제강점기 관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의 주도로 익산지역 고적조사
  - 왕궁리유적, 쌍릉, 기준성 등 마한의 중심지 인식
- 1916년 7월 : 조선총독부에서 부령제 52호 "고적규유적보존규칙" 제정공포
  - 관학자 주도 고적조사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사근거 마련
- 1917년 : 야스이 세이이치(谷井濟一) 주도 최초 발굴
  - 금송으로 추정되는 목재관, 토기, 치아소량 등 출토
  - 백제말기 왕족의 릉묘라고 보고됨
  - ※ 치아4점 분석결과 20~40세 여성의 것 발표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
- 1999년 10월 28일 : 청주한씨 소유 (한창교의 15인) 4만여평 공원부지 지정
- 2002년 1월 17일 : 공원부지 협의 취득 (익산시 소유가 됨)
- 2017년 8월 8일 : 대왕릉 발굴 착수
  - 발굴에 앞서 무왕을 기리고 조사 무사안전기원 고유제 진행한다는 자료 배포
- 2018년 7월 : 나무유골함 담긴 뺏조각 102점 발견, 결과발표
  - 161~170cm 키, 60대 이상 남성, 620~659년 숨진 가능성(신뢰수준 68%), 백제 무왕으로 추정발표(대왕릉을 무왕릉으로 전제 재 발굴 짜 맞추기식 결과 도출)

### 4. 쌍릉에 대한 역사 왜곡 정황 근거

1) 무수한 역사기록 무시

• 고려사절요 24권 충숙왕 16년 3월에 금마군에 마한조상 호강왕의 릉(대왕릉)을 파헤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마한 무강왕이 주인임이 틀림없는 정사(正史)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 고려사에도 익산쌍릉은 무강왕과 그의 비릉이라고 했으며 무강왕의 세보에는 북원 선우, 상당한, 덕양기씨의 시조가 분명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 특히, 안정복의 저서「동사강목」에는 기준 원년부터 마한이 멸한 서기 9년(온조 27년)까지 200여년간의 마한 정통기간에 대하여 기록이 가능한 연대를 상세하게 모두 수록되어 있고

• 그 외에도 삼국사기, 고려사 후한서, 권람의 응세시주 정다산의 아방강역고 등 무수한 사서에도 금마는 기준이 남천한 곳이며 익산쌍릉의 주인공은 무강왕과 그의 비릉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역사기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역사기록이 무시되고 역사기록에도 없는 무왕의 익산천도설과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역사기록이 왜곡·조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 2)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주도의 대왕릉 발굴 신뢰성 결여

•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2000년대 이후 여러 횡수의 학술발표를 통해 그 어느 역사 문헌에도 기록이 없는 익산을 백제 무왕의 도읍지이며, 익산 쌍능의 무왕릉 소왕릉을 선화공주의 릉이라 주장하여 왔고, 특히 2017년 9월 대왕릉 발굴에 앞서 무왕을 기리고 조사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진행한다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왕릉을 무왕릉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이미 정해지고 의도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발굴 결과에 대하여 누가 믿고 이를 수용 할 것인지 발굴기관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 예상과 같이 2018년 대왕릉에서 발견된 나무 유골함에 담긴 뺏조각 102점을 공개 하면서 161~170cm 키에 60대이상 남성의 한사람 것으로 정강이 뺏조각 시료

분석결과 620~659년에 숨진 가능성(신뢰수준 68%)으로 발표하면서 대왕릉의 파장자를 무왕으로 단정함은 역사기록을 경시한 위험한 판단이며, 그야말로 짜맞추기식 발표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 또한 1917년 일제강점기 야스이 세이이치(谷井濟一)의 대왕릉 발굴 때 여성 치아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많은 남성의 인골이 발견되었고,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대왕릉 목함에서 발견된 치아 4점에 20~40대 여성의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대왕릉 재발굴 당시 청주한씨의 입회약속불이행 등 대왕릉 발굴이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의도된 결과물 도출 아닌가 한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익산쌍릉 발굴은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역사문화과도 동떨어진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무상자에 담긴 뺏조각 102점의 진위여부도 발굴기관을 의심하게하고 부정하는 결과의 빌미를 자초하여왔다.

### 5. 무강왕 후손 청주한씨의 주장

• 앞에서 언급한 역사 왜곡 정황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 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고대역사를 축소 왜곡 말살하려는 일본관학자 야스이 세이 이치(谷井濟一)의 쌍릉 발굴보고서를 토대로한 발굴조사.
- ② 정사가 아닌 삼국유사의 허구적인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한 익산쌍릉의 대왕릉을 무왕릉으로 소왕릉을 선화공주의 릉이라 주장하여 왔고
- ③ 그 어느 역사기록에도 없는 무왕의 익산 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 ④ 일제강점기 대왕릉에서 출토된 치아분석결과를 20~40세의 여성의 것이라고 이미 발표한바 있으며 (2015년 전주국립박물관)

### 1. 마한 건국과 익산 쌍릉

#### □ 건국연원

• 마한건국은 기자조선 41세 애왕(哀王, 諱準)이 마한(馬韓) 왕위(王位) 1세 무강왕(武康王)으로부터 기원한다.

• 기원전 194년 위만이 모반(謀反)하여 왕검성의 침략으로 함락되자 남으로 옮기어 금마산(지금의 익산)에 마한국을 세우고 한왕(韓王)이 되었으며 마한이 멸한 서기 9년(백제 온조 27년)까지 200여년 간을 전승하여 왔다.

#### □ 익산 쌍릉

• 익산시 석왕동 소재 사적 제87호 익산쌍릉은「대왕릉(무강왕)과 소왕릉(왕비릉)이다」라는 역사문헌으로 기록하고 있다.

• 무강왕은 청주한씨의 원시조로 문중에서 선조대대로 매년 음력 3월 보름날 익산쌍릉에서 시조제례를 봉행해 오고 있다.

### 2. 익산쌍릉을 둘러싼 분쟁

• 익산쌍릉은 마한태조무강왕과 왕비릉이라는 무수한 역사적기록과 청주한씨 문중에서 시조제례를 봉행해오고 있는 등 여러 정황증거가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2000년대 전후하여 익산시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주도한 여러 횡수의 학술발표 등을 통해 익산이 백제무왕의 도읍지이고, 익산 쌍릉을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릉이라 얼토당토한 주장을 펴면서 마한민속예술제가 전폐(全廢)되고 서동요를 바탕으로 서동축제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변경(變改)되고 익산 쌍릉주변 도로명을 무왕로로 명칭하는 등 역사기록에도 없는 익산을 백제의 왕도로 기정사실화하여 역사

- ⑤ 2018년 대왕릉에서 발견된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목함에 담긴 뿔조각(102점) 분석결과를 키 161~170cm, 60대 이상 남성, 620~649년 사망연대 추정 발표 등 의도되고 짜맞추기식의 결과 도출 의혹
- ⑥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왕릉 발굴 당시 청주한씨문중 임회하의 개릉(開陵) 약속 불이행은 대왕릉 발굴의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 ⑦ 지금도 쌍릉 주변에 남아있는 淸州韓公諱昌教功績碑에는 서기 1923년 왜인들이 왕릉의 도굴을 자행할 때 後裔礪山人諱昌錫은 매일 도굴현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쌍릉의 주인공이 무강왕릉임을 확인하였고
- ⑧ 쌍릉의 복원사업을 위해 “청주한씨 옥구문중”의 종답매각과 종원들의 성금 함께 일금 삼십여만원(당시 백미 2,000 가마 해당됨)을 조성하여 쌍릉 주변 토지 4만여평을 매입하여 명실공히 팔봉왕릉 위토를 만들어 쌍릉을 복원 관리하여 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 ⑨ 1957년 2월 1일자 익산군 팔봉면장으로 부터 익산 무강왕릉묘(一名:익산쌍릉묘)의 묘적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 ⑩ 1963년 1월 21일자 쌍릉이 사적 제 87호로 지정되고 1999년 10월 28일자 쌍릉 주변 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2002년 1월 17일 익산시가 취득하여 2017년부터 쌍릉(대왕릉, 소왕릉) 재 발굴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익산시는 쌍릉의 석등과 석양, 상석 등 6점의 석물을 쌍릉의 원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리법도 무시한채 합부로 철거했다가 위법한 행정행위가 문제되었고, 또한 익산쌍릉(대왕릉)을 백제 무왕릉으로 못 박아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무모한 행정과 백제왕도, 무왕의 익산천도설을 정설(定設)로 짜맞추기식의 역사를 왜곡·조작하고 있는 한편
- ⑪ 익산쌍릉의 무수한 역사 기록에도 여러모로 신뢰성이 결여된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이미 오래전부터 익산쌍릉을 백제 무왕릉이란 전제의 편향된 역사인식하에 쌍릉을 발굴하였다면 역사를 왜곡하는 크나큰 과오와, 무강왕 후손인 청주한씨문중과 종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충격적인사태를 초래케 하였음을 반성하고 사죄해야할 것이며
- ⑫ 마한시조 무강왕 후손인 100만 청주한씨 종원들은 우리의 시조묘인 익산쌍릉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조작하고 있는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반드시 역사의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익산 무강왕릉(대왕릉) 수호 대응방안

• 익산쌍릉은 청주한씨의 시조묘로서 선조대대로 매년 음력 3월보름날 시조제

례를 봉행 해오고 있었으나

- 최근들어 익산시가 익산쌍릉을 백제 무왕릉이니 선화공주릉이니 하면서 무수한 역사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으로 익산시의 일방적 행정행위에 대해 우리 청주한씨중앙종친회 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회에서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 방문, 집회, 정보공개청구, 공개질의 등 익산쌍릉 수호를 위한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 특히, 2017년 8월 8일 대왕릉 발굴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발굴 결과 백제 무왕으로 발표에 이어 익산시가 2020년 7월 28일 대왕릉 발굴 봉안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회에서 대왕릉 행사 관련 봉안하는 부장품 및 세부 행사계획 정보 요청과 함께 우리 시조묘인 대왕릉에 무강왕 명정(銘旌)과 지석(誌石) 봉안을 제안하였다.

- 이로인한 1차로 행사가 연기되었고, 8월 18일 계획했던 봉안행사 또한 무기연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왕릉 출토 인골 78점과 재현된 목관과 목함(인골과편 28점은 연구목적으로 문화재청 출토유물 연구센터 보관)을 봉안하기로 하였으나 익산시에서는 종중측의 명정 및 지석 봉안을 추진할 경우 인골 재봉안 없이 석실은 원상태로 폐쇄하고 인골은 문화재청 인골분석센터에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하여 문화재청의 대왕릉 정비계획의 변경안을 재승인 받아 2020년 9월 22일 대왕릉에 부장품 봉안 없이 폐쇄식을 설치하게 되었다.
- 청주한씨중앙종친회에서는 폐쇄식 설치에 앞서 마한태조무강왕의 혼령(魂靈) 봉안(奉安) 제례행사(祭禮行事)를 거행한

후 석실을 폐쇄하고 복원(復元)하였다.

- 그동안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20여년전부터 익산쌍릉(대왕릉)을 백제 무왕릉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역사를 왜곡·조작으로 마한태조무강왕 후손인 청주한씨 종원들의 가슴에 크나큰 충격적인 사태를 초래케하여 왔으나 앞으로 백제 무왕릉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앞으로 무강왕릉수호범대책 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인 활동과 익산쌍릉은 반드시 수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무강왕 후손들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중앙종친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익산시의 역사왜곡을 감시하고 견제(牽制)해 나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무강왕릉 발굴 · 복원 고유제 봉행

### 무왕의 인골이라 주장하는 인골 재 봉안 없이 원형대로 복원



고유제 봉행

중앙종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9월 22일(화) 11시 익산시 석왕동소재 무강왕릉에서 추대회장, 선교회장 등 전국 5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강왕릉 발굴 · 복원 고유제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추태중앙종친회장, 아헌관에 기길호행주기씨대종회장, 종헌관에 태락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도영중앙회제전이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당초 본 행사는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무강왕릉의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발굴 시 출토된 백제 무왕의 인골이라 주장하는 인골과 목함, 재현된 목관을 재 봉안한 후 정비를 완료하는 봉안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청주한문의 강력한 항의와 제지로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차회의를 거쳐 본래의 계획을 철회하고 인골과 목함, 목관의 재 봉안 없이 발굴 당시의 원형대로 복원 정비하였다.



고유제 봉행 후 기념촬영

추대회장과 태락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예방 준수를 위해 많은 일가분들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전국에서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고 우리 청주한문의 전 종원이 중앙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뜻을 모아 대응하였기에 우리 뜻을 관철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상기하고 앞으로 무강왕릉으로서 역사왜곡이 종결되는 그날까지 객관적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는 한편 특별히 참석해 주신 행주기씨 대종회 기길호회장께도 감사함을 전했다.

기길호회장은 무강왕릉 수호보전을 위해 힘써 대응해주신 청주한문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는 보탬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운영회비(9~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만교 부회장(장도공파회장) 19, 20년도분	2,000,000
유광 부회장(찬성공파회장) 19, 20년도분	2,000,000
두환 부회장(이랑공파회장)	1,00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 회장)	1,000,000
만준 부회장(경남도 회장)	500,000
춘희 부회장(충정공파회장)	500,000
명수 부회장(강원도 회장)	500,000
격동 부회장(충남도회장)	500,000
장훈 부회장(충북도회장)	500,000
동경 부회장(부산시회장)	500,000
기호 상임고문(인천 남동구)	200,000
강락 자문위원(대구 남구)	20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200,000
대현 자문위원(서울 강북구)	200,000
상기 자문위원(인천 서구)	200,000
성용 자문위원(경기 광주시)	200,000
창섭 자문위원(경기 안성시)	200,000
춘섭 부회장(영흥공파회장)	200,000
근준 검임이사(참의공하총의공파회장)	200,000
남교 검임이사(서울 동대문구)	200,000
병동 검임이사(경주시회장)	200,000
봉 검임이사(전북 전주시)	200,000
상돈 검임이사(공주시회장)	200,000
상엽 검임이사(경기 안산시)	200,000
석우 검임이사(경기 용인시)	200,000
일용 검임이사(경기 남양주시)	200,000
종인 검임이사(중앙회 상무이사)	200,000
상완 운영위원(서울 성북구)	200,000
용구 운영위원(전남 진도군)	200,000
철희 운영위원(대전 서구)	200,000
현섭 운영위원(광주 남구)	200,000
규동 자문위원(인천 부평구)	100,000
성교 자문위원(대구 북구)	100,000
기창 검임이사(충남 당진시)	100,000
대석 검임이사(경기 의정부시)	100,000
대석 검임이사(경기 의정부시)	100,000
상복 검임이사(충북 충주시)	100,000
상일 검임이사(서울 노원구)	100,000
상필 검임이사(경기 하남시)	100,000
상호 검임이사(대전 서구)	100,000
성욱 검임이사(서울 강북구)	100,000
영학 검임이사(경기 여주시)	100,000
익전 검임이사(경기 양평군)	100,000
진수 검임이사(인천 강화군)	100,000
현섭 검임이사(경기 시흥시)	100,000
경완 운영위원(경북 경주시)	100,000
광석 운영위원(논산시회장)	100,000
구현 운영위원(경남 진주시)	100,000
기운 운영위원(경북 경주시)	100,000
동석 운영위원(경기 화성시)	100,000
동진 운영위원(경기 화성시)	100,000
명석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범석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이름	금액
상관 운영위원(대구 달서구)	100,000
상익 운영위원(서울 영등포구)	100,000
성규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100,000
임동 운영위원(경기 남양주시)	100,000
정노 운영위원(서울 강남구)	100,000
창상 운영위원(충남 보령시)	100,000
<b>합 계</b>	<b>16,100,000</b>

일반찬조헌성금(9~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하다리종친회	200,000
<b>합 계</b>	<b>200,000</b>

개인정보비(9~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상욱(서울 중구)	200,000
원교(경기 성남시)	200,000
광세(서울 송파구)	100,000
근준 검임이사(참의공하총의공파회장)	100,000
대현 자문위원(서울 강북구)	100,000
동식(경북 경주시)	100,000
성현(충남 당진시)	100,000
영래(경기 부천시)	100,000
이수(서울 광진구)	100,000
천수(전북 전주시)	100,000
명덕(전남 해남군)	50,000
명철(서울 성동구)	50,000
상년(전남 광양시)	50,000
승남 감사(광주 북구)	50,000
영석(경남 합천군)	50,000
원교(서울 송파구)	50,000
차식(부산 사상구)	50,000
창영(경남 남해군)	50,000
고석(충북 청주시)	30,000
규백 부회장(화양공파 회장)	30,000
기석(서울 노원구)	30,000
기호(서울 도봉구)	30,000
동순(전남 해남군)	30,000
민교(충남 천안시)	30,000
성두(울산 북구)	30,000
오(충북 청주시)	30,000
운섭(서울 서대문구)	30,000
원렬(전북 완주군)	30,000
진택(경기 의정부시)	30,000
태진(경북 경주시)	30,000
경희(서울 강남구)	20,000
규덕(경기 부천시)	20,000
기수(경기 성남시)	20,000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기준(강원 강릉시)	20,000
기호 상임고문(인천 남동구)	20,000
덕수(서울 금천구)	20,000

이름	금액
도수(충남 청양군)	20,000
동익(서울 송파구)	20,000
두현(대구 북구)	20,000
면희(서울 서초구)	20,000
상관 운영위원(대구 달서구)	2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 회장)	20,000
상욱(경북 상주시)	20,000
상의(경기 이천시)	20,000
상필 검임이사(경기 하남시)	20,000
석봉(서울 관악구)	20,000
성명미(생경기 화성시)	20,000
순석(경기 오산시)	20,000
승구(경기 성남시)	20,000
승균(대구 북구)	20,000
승언(경기 용인시)	20,000
애삼(서울 서초구)	20,000
영수(광주시 광산구)	20,000
용규(경북 영천시)	20,000
우영(서울 마포구)	20,000
운열(경기 의왕시)	2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20,000
재언(서울 성동구)	20,000
창윤(부산 사하구)	20,000
천덕(강원 원주시)	20,000
충호(강원 원주시)	20,000
태식(서울 동작구)	20,000
현섭 검임이사(경기 시흥시)	20,000
호석(경기 고양시)	20,000
<b>합 계</b>	<b>2,660,000</b>

단체정보비(9~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강북도봉종친회	200,000
공주시종친회	200,000
제주도종친회	200,000
파주시종친회	200,000
하다리종친회	200,000
목포시종친회	150,000
곡성군종친회	100,000
<b>합 계</b>	<b>1,250,000</b>

장학기금 납부내역(9~12월) 단위: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 계
1151	규백(경기 김포시)	200,000	2,430,000
728	희수(경기 고양시)	30,000	400,0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670,000
<b>합 계</b>		<b>240,000</b>	

세향헌성금(2020년도) 단위:원	
이름	금액
태락(대구경북도회장)	2,000,000
추태(중앙회장)	1,000,000

이름	금액
청한산악회(삼량)	500,000
복교(정당공계일종회)	500,000
문간공파종친회(동수)	300,000
부산시종친회(동경)	300,000
서울청정년회(상남)	300,000
제주도서재공파종친회	300,000
화양공파종중(규백)	300,000
광전(경기도종친회장)	300,000
기만(문정공파)	300,000
달섭(중앙회지문위원)	300,000
삼량(청한산악회 회장)	300,000
경기도종친회(광전)	200,000
대구경북종친회(태락)	200,000
대전종친회(갑수)	200,000
문간공하참판공파종중(상량)	200,000
문열공파종중(기천)	200,000
삼재관리위원회(철호)	200,000
서울시종친회(상락)	200,000
인천광역시종친회(천식)	200,000
장도공파종중(만교)	200,000
제주도종친회(정식)	200,000
참의공(휘충지)파종중(근준)	200,000
청원위파종중(상영)	200,000
임동(이조정랑공파)	200,000
현수(중앙회조직이사)	200,000
강북도봉종친회(상남)	100,000
경남종친회(만준)	100,000
관악구종친회(상호)	100,000
문간공하참판공안산반월종중	100,000
문양공파종중(석희)	100,000
문정공삼괴종친회(동진)	100,000
문정공파종중(석구)	100,000
이조정랑공파종중(두환)	100,000
장한공파종중(길우)	100,000
참판공연기현감공파종중(규동)	100,000
천안시종친회(석진)	100,000
충남도종친회(격동)	100,000
판사공파종중(재국)	100,000
평간공파종친회(태교)	100,000
만학(문정공파국현파)	100,000
판관공파종중(연동)	100,000
양절공파주부공파종중	100,000
덕술(송재문정공파)	100,000
도전(처사공파)	100,000
동권(참판공파)	100,000
상남(강북도봉구회장)	100,000
상복(충주시)	100,000
종호(회인)	100,000
희석(송재문정공파)	100,000
희철(송재문정공파)	100,000
성명미(상(발산)	100,000
아산시종친회(홍천)	50,000
경(판사공파종중)	50,000
상분(청한산악회 총무)	50,000
선교(충성공파회장)	제주 3병
<b>합 계</b>	<b>12,250,000</b>

# 성규.재호일가, 종묘 추향대제 제관 봉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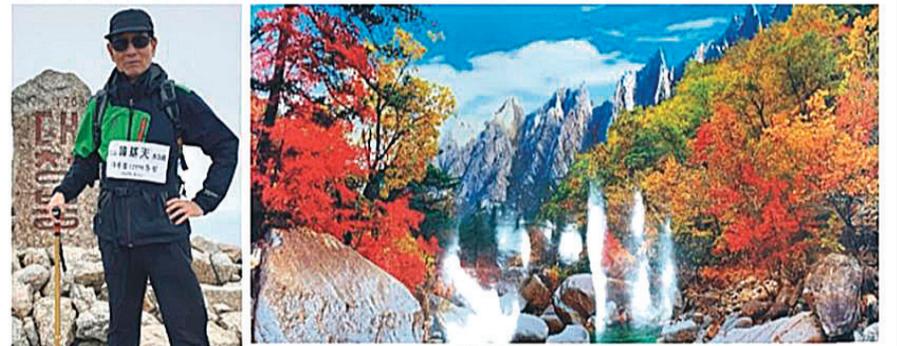
지난 11월 7일(토) 문화재청과 종묘제례보존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종묘 추향대제에 성규(공안공과, 사진 우측)·재호(장간공과, 좌측)일가가 정전에 제관과 집사로 참여하여 제례를 봉행하였다.

추향대제는 5월 춘향대제와는 달리 널리 알리지 않고 조선시대 나라의 제사라는 순수성에 초점을 맞춰 보다 경건하게 본래의 의미에 더 충실하게 봉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종묘에서 봉행되며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20년 11월10일 제주도에서 **청주한씨 시도회장단협의회** 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1시 제주공항 집결, 11시30분 청주한씨 제주 종친회관, 제주 정식회장 환영사 및 입원소개, 감사회장 개회사 및 회장단 소개, 4건 안건결의, 서계공 영상시청, 감치조법 오찬, 제주휴대지 만찬, 시귀포 고급호텔, 호텔조찬, 장미공원, 천지연폭포, 둘레길산책, 외돌개, 서계공묘소 참배, 정식회장 최대 양식장방문, 상심회 전복 오찬. (다음요일은 2월경기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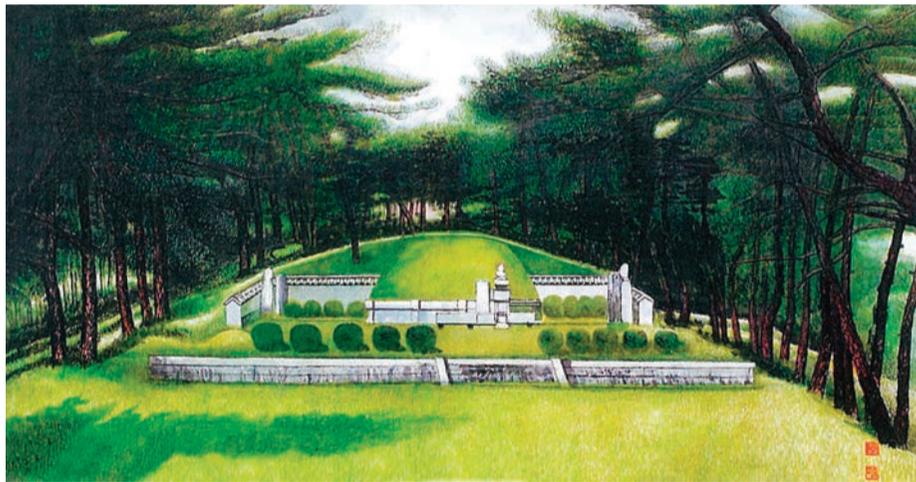
**대청봉 (설악산)**

우리나라 남한에서 3번째 높은(한라산1,950m,지리산1,915m) 대청봉 1,709m이다. 정상오르기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하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난 코스이다. 걸었을때는 오색에서 대청봉정상,비선대, 설악산 입구까지 11시간 소요되었지만, 이번 등정은 16시간 걸리는 힘든 산행이었다. 나이는 숫자일뿐이다가 아니고, 나이는 못살이다가 맞는것을 체험했다. 대청봉은 40대부터 43년전 이번 등정이 17번째였다.

대청봉(설악산)입산을 산본관제로 5월 31일까지는 금지하고 6월1일부터 입산을 허락한다. 나는 6월2일 행사일로 마음속이 정해놓고 2개월전부터 인선 산들을 오르내리고, 아파트 25층계단을 매일 한두번씩 오르내려 다리힘을 단련시켰다. 산행에 중요할것은 첫째 몸상태, 둘째는 날씨다. 마침 일기에보내씨가 좋았다. 76세인 친동생(기용)에게 같이 가자 했더니 행님 갈수 있겠나 걱정되는 말, 최대한 무게, 짐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2020년 6월 1일 오전 10시 인천에서 우등고속으로 속초터미널 1시에 도착. 시내버스로 양양까지, 양양에서 오색까지 버스로 오후 4시 도착, 입산 입구 제인 가까운 숙소잡고, 저녁은 고단백질로 든든히 하고, 11시에 취침, 다음날 2시 기상, 3시에 제일 먼저 전통마을에 갔다가 입산 17번째 대청봉정점에 올랐다. 내가 그동안 16번 대청봉정점을 했지만 오르는 계단이 몇개인지 확인하고자 공을 10개준마니에 넣고 100계단을 1개의 열주머니에 옮기고 10개가 옮겨지면 동시에 바쁜 청자 표시로 기록을 써서 (평지는 새지않음) 오색에서 대청봉까지는 8,344계단이었다. 하산길에는 대청봉에서 비선대까지 12,340계단이었다 (평지는새비), 대청봉 정상 하산길에 계단을 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전부후부한 **한기천**이 아니라 생각도 했다. 동생은 늘 앞에 가지만, 땀소리 하기전에는 말 붙이지 말자 하고 땀하고 한숨쉬고, 땀소리를 2백번 넘게 한것 같다. 출발 1시간정도 중턱에 오르면, 비선대에 물이 떨어지어 오르려니 잠시후리는 계속 주위를 당겼다. 처음은 5백계단 오르고 쉬다가 4백,3백,2백 점점 자주 쉬는 몸이 되어버렸다. 주먹밥도 아침으로 1개 가지고 나눠먹고, 힘들면 힘나게 하는 준비한 모든것 총동원 보충하고, 아주 힘들 때는 막아스를 풀봉에 가져온 것을 마시던 상큼 생기가 들었다. 출발 6시간만에 9시에 대청봉 정상에 오르니 날씨는 좋으나 땀바람에 몸 가누기가 힘들었다. 기념사진 촬영은 당연, 옷감이 입고 준비한 기록 유인물 가슴에 부치고, 잠시 그러하듯이 오는데 이상심명이 줄을 서서 사진찍기위해 대기중인데 가슴에 붙인 **80세 한기천 17번째** 대청봉정점이라는 것을 보고 어르신 먼저 사진찍도록 양보해주자 누가 소리치니 박수를 치고 자리를 우선 내워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대청봉에서 5년 근무 한다는 직원이 80세 노인이 오신 것 처음봤다고 칭찬도 했다. 9시30분 대청봉에서 8시간만에(대청봉은 하산길이 더길고 힘들다) 오후 5시30분 설악산입구까지 도착해서 택시로 속초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다. 속초알바다를 보면서 싱싱한 회와 태운방으로 초추3명을 행차가 3입력 마시고, 7시 50분 인천가는 막차 우등고속에 몸을 맡기어 11시에 인천터미널도착,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2020. 11. 20 **청주한씨 문열공종중회 회장 한 기 천** (전. 인천광역시 회장)

# 혁동자문위원, 광주서예전람회 특별상



혁동자문위원(사진, 광주광역시 거주)이 제19회 광주서예전람회에 선조묘영(사진)을 출품하여 특별상(문인화)을 수상하였다.



금강산 만물상(8폭 병풍)

50년 미술사에 선조묘영 전경을 올려 표창을 받은바 있는 혁동위원은 전남대 법과대학 및 미술교육대학원 졸업, 광주 동신여중 교장 퇴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한국화특장

전 추천, 초대작가 심사 역임, 대통령 표창, 현재 한국서가협회 광주시지회 원로 자문, 영광삼재관리위원회 고문, 중앙회 자문위원, 남도서화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 오수면 한병엽일가 성금 100만원 및 백미 600Kg 기탁



임실군 오수면 용정마을에 거주하는 한병엽일가가 지난 11월 16일 오수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성금 100만원과 백미 600kg을 기탁했다. 고향인 오수로 귀농하여 201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과 현금을 기탁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한병엽일가는 "연말연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나 이들이 따뜻하게 추운 겨울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강승 오수면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온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안내

- ◆회비·헌성금종보대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인터넷족보 수단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54
  -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무강왕릉수호기금
  - 국민은행 009902-04-323878
  - 예금주 한추대
- 국민은행 624201-04-487233
  - 예금주 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회

## 중앙종친회 사칭에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종친회는 종사보감 등 책자의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 10세 서원군(諱 方信) 사적비 제막



서원군부군 사적비 제막 기념



서원군파문중 이사회 후, 영모재



경수.길수회장 송덕비 제막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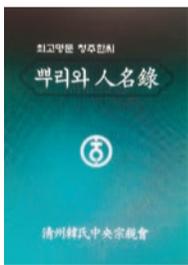
중앙총친회 추대회장은 지난 11월 21일 장흥면 삼상리소재 서원군파문중(회장 길수)의 서원사를 방문, 서원군(휘 방신) 사적비 제막행사에 참석한 후 길수회장 등 집행부 임원분들과 종사 현안에 관한 의견과 환담을 나누었다.

서원군파문중은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사 현안을 논의 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서원군부군 및 예하 선조분들의 세향 봉행에 이어 고려후기 정당문학, 동지공거, 첨의평리 등을 역임한 서원군부군의 사적비를 제막하였다.

### 청주한씨 '뿌리와 인명록' 출간 선조 유사 및 종원 인명부 등 수록

중앙총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12월 청주한씨 뿌리와 인명록 편집과 인쇄를 완료하였다. 명문 청주한씨의 연원과 세계, 시조부군을 비롯한 선조님과 종파문중의 중시조 유사와 유적,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종파문중 및 지역별 종원분들의 인적 사항 등을 게재하였다. 청주한문 후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인성정립에 기여하고, 일가 간 소통의 매체

로서 화합 돈독에 일조하면서 종사의 계승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도서의 출간경비는 추대회장의 찬조금과 광고협찬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 납입된 일부 게재비용은 중앙총친회 경상경비로 전입하였다.



### 청주한씨보 '30년사' 및 '40년사' 출간 영인본 합본, 2권으로 분류 집대성

중앙총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12월 말 청주한씨보 30년사 및 40년사를 영인본 합본으로 출간하였다. 1976년 11월 1일 창간호 발간이후 그동안 1985년 8월에 10년사, 1999년 1월에 2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금번에 제127호(1999년 신년호)부터 192호(2009년 11월)까지를 30년사로, 제 193호(2010년 신년호)부터 제265호(2020



년 9월)까지를 합본하여 40년사로 각각 550p 내외로 분류하여 2권으로 간행하였다. 격월로 발간되는 청주한씨보는 한씨문중과 일가들의 갖가지

### 전북 순국선열의 날 행사, 고 한일봉 애국지사 건국훈장 포상

지난 11월 17일 전북도와 광복회 전북지부는 민족 자존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도민통합과 전북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 전북 입실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비밀결사 조직에 참여한 고 한일봉 애국지사(1906년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 아들인 한병태(80, 안양공과)씨에게 전수하였다. 건국훈장 애족장은 건국훈장 1~5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한일봉 지사는 1932년 12월 전북 입실군에서 비밀결사 냉천야학계, 1933년 4월 비밀결사 공복계 조직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조



오른쪽에서 세번째 고 한일봉 지사의 아들 한병태일가

국의 광복을 위해 망국의 치욕과 선열들의 피어린 투쟁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광복회원과 보훈가족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육유공자 이남주원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김포 회양공파문중 영섭일가의 배(配)

지난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유공자 정부포상식'에서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30년 넘게 헌신한 이남주 사회복지법인 전원어린이집 원장(사진)이 영예의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 받아 종원과 지역 사회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고 있다. 이남주원장(사회복지법인 전원어린이집, 경기 김포 소재)은 1983년 새마을 유아원 보육교사로 보육계에 몸담은 이래 1991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된 이후 올해 6월까지 30년 동안 공공보육 현장을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이남주 원장

열린어린이집 등 보육정책의 새로운 시도에 참여해 장애아 통합보육,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분야 보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자기계발에도 힘써 사회복지사 1급, 유아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해 서울시 및 여러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와 정부의 누리과정프로그램 개발위원, 보육지원체계개편 특별전담팀(TF)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집행부 임원회의 개최



중앙총친회 추대회장은 지난 12월 11일 중앙회 사무실에서 집행부 연말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년도 1년을 회고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종사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격려했다.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이자 역사서이다. 청주한씨보를 대변하는 귀중한 자료로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만 하고 또 송조돈독하는 중친회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

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출간물의 간행경비는 춘섭문화복지회장의 찬조금으로 충당하였음에 감사드린다. 구입 문의 중앙총친회